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대본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느 부족의 말하기 관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족에서는 사냥에 나간 젊은이들이 돌아왔을 때, 아주 큰 사냥감을 잡은 젊은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네요. “전 사냥에 영 소질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잡았어요.”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재미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뭔가 큰 걸 잡아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칭찬하고 치켜세우기보다는 겨우 그렇게 작은 것을 잡아 왔느냐고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는군요. 이러한 말하기 관습에서는 사냥에 성공한 젊은이가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거나 부족 사회에 동화되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사냥을 해 오지 못한 다른 젊은이들이 혹시 실망을 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주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족의 말하기 관습에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모두가 모두를 생각해 주는 지혜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2.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겨울이 되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죠? 손발이 차가워지는 원인은 대개 혈액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때 피부 가까이에 분포해 동맥과 정맥을 직접 이어 주는 글로뮌이라는 관으로 피가 흐르면서 손발이 따뜻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즉 동맥에서 공급된 피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글로뮌을 통해 직접 정맥으로 흐르면서, 손발에 다시 따뜻한 피의 양이 늘어나 피부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글로뮌은 평소에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글로뮌이 열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글로뮌이 딱딱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면 추울 때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이 차가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글로뮌을 다른 말로 동정맥문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글로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에는 과식, 음주,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3. 다음은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딸 : 아빠, 여기가 우리 방이네요. 어, 문에 비상 대피도란 게 붙어 있어요.

아빠 : 응, 비상시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이런 숙박 시설엔 객실마다 꼭 붙어 있지.

딸 : 아, 여기를 보세요. 별표가 지금 우리 방이에요.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건 비상구고, 비상시에 여기로 대피하라는 말이군요.

아빠 : 응, 그렇지. 그럼 이번 기회에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몇 가지 알려줘야겠구나. 승강기는 화재 시에 아주 위험해서 이용하면 안 돼. 대신 비상구를 이용해야 하지. 1층에 별도로 설치된 비상문도 건물의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거란다. 그리고 여기 이 완강기는 밧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피난 기구인데, 3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별도로 설치돼 있어. 이 건물도 피난 기구가 2층엔 없고 3층엔 있더구나.

딸 : 그렇군요. 음, 그런데 옥상으로 대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빠 : 아, 그땐 피난을 유도하는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돼. 복도 유도등의 화살표는 비상구 쪽으로 돼 있고, 비상구 계단을 통해 옥상이나 지상으로 갈 수 있단다.

딸 : 아, 네. 여기엔 또 소화전의 위치도 나와 있네요. 불났을 때 물도 뿌리고 비상 상황도 알릴 수 있겠어요.

아빠 : 응, 소화전이 보통 비상경보 장치와 함께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도 그렇더구나. 층마다 설치돼 있어서 비상경보 장치의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면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려. 그리고 비상 대피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객실이든 휴게실이든 모든 방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과 소화기가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단다. 어때, 이제 좀 알겠니? 여행을 다닐 때는 만일에 대비해서 이런 걸 알아 두면 좋단다.

[4~5] 다음은 토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얼마 전 우리 동네 주민 도서관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번 토의에 이어 이번 토의에서도 도서관 측과 이용자 측 발표자를 모시고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측 발표자: 현재 도서관 운영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자료를 열람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반 열람실은 물론 자료를 쉽게 보도록 서가 옆에 책상을 비치해 놓은 개가식 열람실까지도 사람들이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방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해서 좌석을 늘리고 서가가 없는 일반 열람실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볼 수 있는 개가식 열람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다음은 이용자 측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용자 측 발표자: 사실 일반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열람실을 축소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보다는 지난번 토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개가식 열람실 개방 시간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는 주말에만 개가식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평일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면 개가식 열람실은 문을 닫은 상태죠.

사회자: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하면, 첫째는 공간 조정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둘째는 개가식 열람실 개방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용자 측 발표자께서는 죄송하지만 개방 시간 연장은 이미 지난번 토의에서 예산과 인력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었습니다. 특별히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는 공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용자 측 발표자: 네. 알겠습니다. 개방 시간 연장이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하니, 새로운 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자료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지 않을까요?

도서관 측 발표자: 글썽요. 개방 시간 연장도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료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문제이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자료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